

2010년 축산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주최한 '2010 농업전망'에서 발표된 2010년 축산전망으로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280만마리로 전년 264만마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돼지는 2.6% 증가한 954만두, 산란계는 2.5% 감소한 6천9만수, 육계는 5.0% 증가한 7,980만수로 전망했다. 본지는 축종별 수급전망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한우

2009년에는 최고가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정육점형 식당의 증가로 한우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우 산지가격도 2009년 6월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신뢰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2009년 전반기에는 환율도 높게 형성되어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우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한우 사육두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및 한·EU FTA 타결 내용이 2011년부터 이행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40%에서 15년에 걸쳐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 한육우 사육마리수와 산지가격을 추정했다. 단, 한·EU FTA가 국내 한육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80만두로 2009년 264만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11년을 정점으로 2012년부터는 사육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0년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2009년보다 17.4% 상승한 520만원으로 전망된다.

돼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과 수입량 감소,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 백신 보급의 확대로 사돈 폐사율이 개선되어 2009년 돼지 연평균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929만두였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돼지고기 평균 지육가격은 2008년보다 9.0% 상승한 4,472원/kg이었다.

2010년 돼지 사육두수는 2009년 보통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6% 증가한 954만두로 예상되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해 지육가격은 전년대비 3.5% 하락한 4,315원으로 전망된다.

산란계

2009년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에 따라 계란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계란 1인당 소비량 역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계란 생산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계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사료 가격 인상분이 계란가격에 반영되어 2009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0.2% 상승한 1,175원(계란 10개당)이었다.

2009년 산란 종계 입식 수수 감소에 따라 2010년 산란계 사육수수 및 계란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계란소비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1.1kg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감소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3% 상승한 1,190원으로 전망된다.

육계

종계 입식 증가로 2009년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19.3% 증가한 7,600만수였다.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사료가격 인상분이 산지가격에 반영되면서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2008년보다 23.5% 상승한 1,933원/생체kg이었다.

2010년 육계 사육수수는 2009년 육계종계 입식수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5.0% 증가한 7,980만수로 예상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9.6% 하락한 1,748원으로 전망된다.